

# 치열해지는 프로야구 선두·3위 다툼...순위 경쟁 '점입가경'

2위 LG 7연승으로 가파른 상승세...선두 SSG 4경기차 추격  
'불펜 안정찾은' 키움·KT 3위 다툼도 치열...불과 1.5경기차

시즌 막바지로 갈수록 선두와 3위를 놓고 벌이는 경쟁이 한층 뜨거워지고 있다.

2위 LG 트윈스가 7연승으로 매서운 상승세를 뽐내면서 SSG 랜더스의 선두 독주 체제를 흔들고 있다. 지난주 4위였던 키움 히어로즈가 5연승을 달리며 3위 자리의 주인도 바뀌었다.

SSG는 올 시즌 개막부터 시즌이 막바지에 접어들어 현재까지 한 번도 1위를 놓치지 않았다. 시즌이 막바지에 접어들어 8월 중순에는 1위 SSG와 2위 LG의 격차가 9.5경기까지 벌어져 SSG가 무난하게 정규시즌 우승을 차지할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LG가 연승 가도를 달리면서 SSG도 선두 수성을 장담할 수 없는 처지에 놓였다. 2위 LG(60승 1무 39패)와 SSG(71승 3무 31패)의 격차는 4경기까지 좁혀졌다.

시즌 초반부터 SSG의 약점으로 꼽힌 뒷문이 최근 불안한 모습을 노출했다. 마무리 투수 서진웅이 흔들린 것이 뼈아팠다.

김택형의 부상으로 5월말부터 마무리 투수로 댄 서진웅은 마무리 전환 후 21세이브를 수확하며 제 몫을 다했지만, 최근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지난달 25일 KT 위즈전과 31일 삼성 라이온즈전에서 각각 1/3이닝 1실점, 1/3이닝 1실점을 기록하고 패전의 멍에를 썼다. 이달 2일 NC 다이노스전에서는 5-1로 앞선 상황에서 등판했으나 1/3이닝 2실점하고 강판됐다.

결국 김원형 SSG 감독은 마무리 투수를 문승원으로 교체하기로 결단을 내린 상황이다.

타격 부진도 SSG의 발목을 잡았다. 최근 10경기에서 SSG의 팀 타율은 0.217에 불과했다.

최근 5경기에서는 타격 부진이 더욱 극심했다. 5경기 중 4경기에서 2점 이상을 내지 못했다. 해당 경기에서 모두 졌다.

반면 LG는 약점이었던 토종 선발진이 안정을 찾으면서 상승세를 자랑했다.

LG는 케이시 켈리, 아담 플러코로 이어지는 강력한 원투펀치를 갖췄지만, 토종 선발진이 제 몫을 하지 못해 골치를 앓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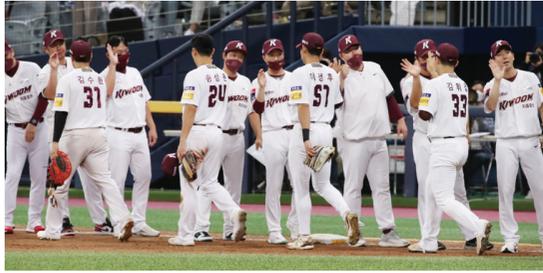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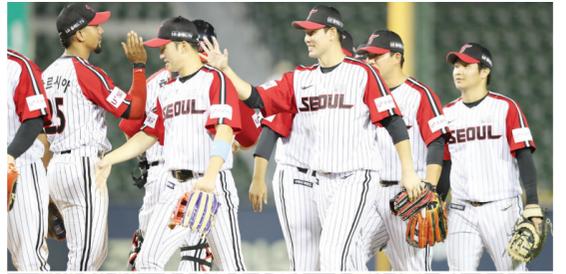
그러나 3-5선발인 임찬규와 김윤식, 이민호가 최근 안정적인 모습을 자랑하고 있다.

김윤식은 지난달 25일 KIA 타이거즈전에서 8이닝 1실점으로 패투를 선보였고, 2일 KT전에서 6이닝 2피안타 무실점으로 잘 던졌다.

임찬규도 8월 27일 키움전에서 5이닝 무실점을 기록하고 시즌 5승째를 수확했다. 이민호는 8월 18일 SSG전, 24일 한화 이글스전에서 각각 6이닝 1실점, 5이닝 2실점으로 호투했다.

타선은 여전히 위력적이다. 최근 10경기에서 문보경(0.419), 채은성(0.343), 오지환(0.333), 박해민(0.310)이 맹타를 휘두르며 타선을 이끌었다.

SSG와 LG는 6-7월 잠실구장에서 2연전을 벌인다. 2연전 결과에 따라 선두 싸움은 더욱 안갯속에 빠질 수도 있다.



3위 자리를 놓고는 키움과 KT가 뜨거운 경쟁을 펼치고 있다.

8월 중순까지 3위 자리의 주인은 키움이었다. 그러나 후반기 들어 주춤한 키움의 부진을 빚지 못하고, 4위였던 KT가 지난달 21일부터 26일까지 5연승을 달리면서 3위를 꿰찼다.

KT가 지난주 시작 전까지 3위를 지켰는데, 키움은 지난주 치른 5경기를 모두 승리로 장식하면서 KT를 4위로 끌어내리고 다시 3위로 점프했다.

키움은 후반기 들어 불안한 모습을 보였던 불펜이 안정을 찾은 모습이다. 키움 불펜진은

8월 30일과 31일 롯데 자이언츠전에서 모두 1점차 승리를 지켜냈다. 이달 3일 SSG전에서도 양현종과 김성기, 김태훈이 1이닝씩을 무실점으로 틀어막으면서 2-1 승리를 낚을 수 있었다.

이정후가 살아나면서 타선도 한층 활발한 모습을 보였다. 이정후는 지난주 치른 5경기에서 0.588로 맹타를 휘둘렀다.

KT는 LG전에서 두 차례 역전패를 당한 탓에 연승을 달리 키움에 3위 자리를 내줘야 했다. 그러나 전반적인 흐름이 나쁘지 않은 상황이고, 3위 키움에 불과 1.5경기 차로 뒤져있어 언제든지 3위 재등극을 노릴 수 있다.

KT와 키움은 10-11일 고척에서 맞대결을 한다.

키움은 최근 5경기에서 타율 0.476으로 활약 하던 김해성이 손가락 부상으로 사실상 시즌 아웃되는 악재를 만난 상황이다. 도루 1위를 달리며 공격 첨병 역할을 하던 김해성의 이탈은 키움에 커다란 전력 손실이다.

KT는 지난주 포수 장성우까지 복귀해 '완전체 타선'을 구축한 상태다.

이번 시즌 두 팀의 맞대결에서는 키움의 7승 1무 6패로 근소한 우위를 점하고 있다. 다만 후반기 대결에서는 KT가 4승 1패로 압도했다.



정나은(왼쪽)-김혜정

## 배드민턴 여자복식 정나은-김혜정, 일본 오픈 금메달 한국, 대회 2연패...안세영, 여자단식 결승서 야마구치에 저 은메달

한국 배드민턴 여자복식의 정나은(22)-김혜정(24)이 일본 오픈 정상에 올랐다.

정나은-김혜정은 4일 일본 오사카에서 벌어진 2022 일본 오픈 배드민턴선수권대회 여자복식 결승전에서 백하나(22)-이유림(22)을 2-0(23-21 28-26)으로 누르고 금메달을 땀다.

이로써 한국은 2019년 우승한 김소영(30)-공희용(26)에 이어 대회 2연패에 성공했다.

이번 대회는 코로나19 사태로 3년 만에 개최됐다.

지난 3월 전영 오픈에서 동메달을 수확했던 정나은-김혜정은 4월 코리아 오픈에 이어 일본 오픈까지 우승하며 상승세를 이어갔다.

이번 일본 오픈 여자복식에서 한국의 금메

달과 은메달 그리고 동메달(김소영-공희용)까지 모두 싹쓸이했다.

여자단식 안세영은 이날 열린 여자단식 결승전에서 세계랭킹 1위 야마구치 아카네(일본)에 0-2(9-21 15-21)로 저 은메달에 만족해야 했다.

지난달 세계선수권 여자단식 4강에서 야마구치에 쫓긴 안세영은 실욕에 실패했다.

야마구치와의 상대 전적은 5승9패로 열세다.

한편 한국 대표팀은 이번 대회에서 금메달 1개(여자복식), 은메달 2개(여자단식·여자복식), 동메달 2개(여자복식·남자복식)를 수확했다.

## 4년 만의 골 가뭄 직면한 손흥민, 소나기골 언제쯤?

리그 6라운드까지 무득점 행진 골대 불운, 상대 자책골 기록 겹쳐 2018년도 11월 들어서야 득점 시작

지난 시즌 23골로 모하메드 살라(리버풀)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공동 득점왕에 오른 손흥민(30·토트넘)이 올 시즌 6경기째 골맛을 보지 못하고 있다. 4년 만에 찾아온 골 가뭄을 해소해야 하는 손흥민이 언제쯤 득점포를 가동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손흥민이 득점을 올리지 못하는 이유를 놓고 다양한 분석이 나오고 있다. 지난 시즌 득점왕에 대한 상대의 집중 견제, 손흥민 본인에게 느끼는 심리적 부담, 이번 페리시치 등 새로 합류한 선수들과 전술 혼선 등이 무득점의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득점을 올리지 못하자 안토니오 콘테 감독은 손흥민을 수차례 조기 교체했고 이에 손흥민은 짜증스러운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불운도 이어지고 있다. 특히 골대가 손흥민의 득점을 막고 있다.

손흥민은 지난 3일 프리미어리그 6라운드 풀럼전에서 전반 33분 케인의 정확함 침투 패스를 받아 가슴으로 떨군 후 왼발슛으로 연결했지만 공은 크로스바를 때렸다.

지난달 20일 프리미어리그 3라운드에서도 손흥민은 후반 17분 강력한 오른발슛을 날렸지만 공은 골키퍼 손을 스친 후 오른쪽 골포스트에 맞고 골문 밖으로 벗어났다.

지난 1일 프리미어리그 5라운드 웨스트햄 유나이티드전에서는 손흥민의 발끝에서 골이 나왔지만 이 역시 손흥민의 득점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경험 과정에서 손흥민의 발



을 맞고 공이 골라인을 넘어갔지만 이는 웨스트햄 수비수 킬로 케리의 자책골로 기록됐다.

손흥민의 골 가뭄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18-19시즌 당시 손흥민은 리그 개막 후 3개월 만인 11월에야 첫 골을 넣었다.

당시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출전으로 자리를 비웠던 손흥민은 5라운드 리버풀전을 통해 복귀했지만 체력적 부담으로 제 몫을 하지 못했다.

무득점과 교체 출장 등으로 위기감을 느꼈던 손흥민은 2018년 11월이 돼서야 골맛을 보기 시작했다.

손흥민은 11월1일 웨스트햄 유나이티드와의 2018-2019 잉글랜드 카라바오컵 16강전에서 두 골을 넣었다. 11월 A매치를 건너뛴 채 런던에 남아 컨

디션에 조율한 손흥민은 휴식 후 재개된 첫 경기에서 리그 첫 골을 신고했다.

손흥민은 11월25일 오전 첼시와의 2018-2019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13라운드 선발 출전에 원더골을 성공시켰다.

가벼운 몸놀림을 보이던 손흥민은 후반 9분 터치라인을 따라 드리블을 하더니 이탈리아 국가대표 조르지뉴와 브라질 대표팀 출신 다비드 루이스를 차례로 제친 뒤 왼발 땅볼슛으로 골을 터뜨렸다.

이에 따라 컨디션을 조금씩 회복하고 있는 손흥민이 4년 전 첼시전처럼 환상적인 골로 부활을 알릴지 주목된다.

손흥민은 오는 8일 런던에서 마르세유(프랑스)와 2022-2023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UCL) 조별리그 D조 1차전을 치를 예정이다.

## 아시아 톱 랭커 총출동...신한동해오픈 8일 일본서 개막

최근 한국프로골프(KPGA) 코리아투어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서요섭이 무대를 아시아로 확장한다.

신한금융그룹(회장 조용병)은 '제38회 신한동해오픈(총상금 14억원·우승상금 2억5200만원)'을 오는 8일부터 11일까지 일본 나라현 코마켄트리클럽(파71)에서 개최한다.

국내 단일스폰서 프로골프대회 중 가장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신한동해오픈은 지난 2019년 대회 국제화를 위해 코리아투어(KPGA), 아시아투어, 일본프로투어(JGTO) 3개 투어 공동주관으로 첫 개최됐다.

최근 2년간은 코로나19 영향으로 KPGA 단독 주관 하에 개최됐으나, 확산세가 진정되고 일본 입국 절차가 완화됨에 따라 3개 투어 공동 주관을 재개하게 됐다.

이번 대회에서는 코리아투어, 아시아투어, 일본프로투어의 상위권 선수 각 40여명씩 총 138명의 선수가 경쟁하며 우승자는 3개 투어 출전권을 동시에 확보한다.

디펜딩챔피언 서요섭은 KPGA 코리아투어 3주 연속 우승에 도전한다.

세계랭킹 75위 김시우는 프로 데뷔 후 처음으로 신한동해오픈에 출전한다.

## 함평파크골프장, 호남 최초 공인구장 인증...전국 15번째

함평파크골프장이 호남 최초로 공인 파크골프장 인증을 받았다.

함평군은 2일 "함평파크골프장이 최근 대한파크골프협회로부터 공인파크골프장 인증을 취득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한파크골프협회 인증 취득으로, 함평파크골프장은 호남 최초 공인구장이자 전국 15번째 공식 구장이 됐다. 앞서 지난 7월 대한파크골프협회는 공인인증

을 위한 인증위원회를 함평파크골프장에서 실시했으며, 위원회는 경기장 규격, 안전시설 및 부대시설을 점검해 최종 인증절차를 거쳤다.

함평파크골프장은 36홀(부지면적 59,450㎡) 규모의 수려한 경관과 쾌적한 시설로 전국에서 많은 파크골프 동호인들이 찾고 있는 골프장이다.

군은 이번 공인구장 인증을 계기로 대한파크골프협회가 주관하는 파크골프 지도자 자

격증 시험 및 각종 전국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

이상의 함평군수는 "최고의 시설과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보유한 함평파크골프장이 전국 파크골프 동호인들의 사랑을 받는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시설개선과 유지관리에 힘써 함평군 파크골프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함평-김광춘기자